

1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요

배울 말씀

창세기 1:26,
시편 19:1, 57:10-11,
로마서 1:20,
골로새서 3:23

읽을 말씀

창세기 1:26,
시편 19:1,
골로새서 3:23

외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메인 아이디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라!

목표

- 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을 안다.
- ②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공부함을 안다.
- ③ 주님께 하듯 공부해야 함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말씀마당 그림자료 ,
어린이용 교재,
필기도구,
O링,
배움마당 카드

설명

기독교인에게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세속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명(Calling)의 과정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공부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인생 목적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는 본질적인 신앙 교육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만든 이의 의도가 담긴 매뉴얼을 읽어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만드셨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칭지기적 사명'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공부를 단순히 운택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결국 세상의 성공 신화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고유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될 때, 어린이들은 학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얻게 된다.

1과에서 어린이들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학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자라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READY!

어린이용 교재 1과를 준비한다.

GO!

공부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공부가 중요하고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왜 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어린이용 교재 1번 그림을 가리키며) 1번 그림을 보세요. 두 어린이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먹을 간식을 사려고 마트에 왔어요. 1,300원짜리 아이스크림 15개와 1,500원짜리 과자 10개를 사려고 해요.

이때, 덧셈만 아는 어린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하나씩 더해야겠죠. 1,300 더하기 1,300 더하기 1,300 ... 이렇게 15번 더하고, 1,500 더하기 1,500 더하기 1,500 ... 이렇게 10번 더해서 두 값을 합해야 해요. 식이 길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그럼, 곱셈을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어떨까요? (대답을 들은 후) 1,300 곱하기 15의 값을 구하고, 1,500 곱하기 10의 값을 구해서 합하면 34,500원이 나와요. 곱셈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2번 그림을 가리키며) 2번 그림을 같이 볼까요? 유치원생인 동생은 곰팡이와 세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음식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와 세균을 떠올리며 위험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인 어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배워서 알아요. 곰팡이나 세균은 음식을 상하게도 하고,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된장, 치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요.



이처럼 우리가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도움이 되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말씀마당

TIP

그림자료를 스케치북, 용판 등에 붙여 활용하면 편리하다.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에서 말씀마당 그림자료 1과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한다.

GO!

1.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1-1을 보여주며) 여러분, 돌고래가 분수의 덧셈을 척척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사자가 자신의 조상에 대한 기록을 찾아 연구했다는 말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돌고래는 간단한 숫자 개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사자나 다른 동물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책으로 만들어 읽거나 연구하는 일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답을 들은 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림 아래쪽 말씀을 가리키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이해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요즘 과학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나요? (대답을 듣는다. ㉠ 생물과 환경, 기후와 날씨, 물체의 변화,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자연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나요? (대답을 듣는다. ㉡ 민주주의, 자치, 지역 사회의 환경, 역사와 문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돌봐야 할 세상을 더 잘 알게 되어요.

2.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1-2를 보여주고, 돋보기로 곤충을 관찰하는 어린이를 가리키며) 여러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곤충과 같이 작은 것을 본 적 있나요? 어떤 모양이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개미처럼 아주 작은 곤충도 눈과 더듬이, 다리 등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어요. 또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한 적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어린이를 가리키며) 우주에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은 움직이면서 왜 부딪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밀하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림 아래쪽 말씀을 가리키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시 19:1, 쉬운성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를 알려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누구를 더 잘 알게 될까요? 또 누가 위대하다고 느껴질까요? (대답을 들은 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시 57:10-11).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세요(롬 1:20).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리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미술과 음악을 배우면 더 창의적이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국어를 배우면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할 힘을 얻게 되어요. 또, 외국어를 배우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공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3.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에게 2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게임과 공부 중 무엇을 선택하고 싶나요? (대답을 들은 후) 공부가 아닌 게임을 선택한 어린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공

부가 언제나 쉽거나 재미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 공부하기가 가장 힘든가요? (대답을 듣는다. ㉞ 시험이 있을 때 / 몸이 아플 때 /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1-3을 보여주고, 그림 오른쪽 말씀을 가리키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바로 주님께 하듯 해야 해요. 그럼 주님께 하듯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구

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㉞ 답을 몰래 보지 않아요 / 친구의 답을 베끼지 않아요 / 매일 기쁘게 숙제해요 / 기도하고 공부해요.) 잘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하듯 공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내하는 것, 끈기를 가지는 것도 배우게 되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해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어요. 또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이 더 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공부를 방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㉞ 휴대폰 전원을 꺼요 / 방문을 열고 공부해요.) 잘했어요. 이처럼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단순히 학교 점수를 잘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요.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에서 배움마당 카드를 모두 뜯어 준비한다.
- ② O링과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GO!

어린이들과 배움마당 카드를 완성한 후,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① 배움마당 카드를 모두 뜯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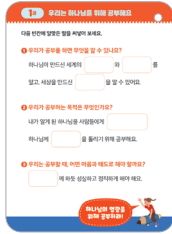
② 뜯어놓은 배움마당 카드를 표지부터 1과~18과, 뒤표지까지 순서대로 놓는다.



③ O링에 끼워 완성한다.

TIP

배움마당 카드는 매 과에서 사용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둔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세요.

-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원리)와 (질서)를 알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해요.
-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할까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해요.

D

우리가 공부하면 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
기 때문이에요. /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공부하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라!”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1과를 준비한다.
- ②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GO!

1.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갈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이것을 배웠어요! ◎

<p>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감히려 대화하기 • 주장하는 글쓰기 • 감성문 쓰기 • 의견 조정하기 • 작품 속 인물 살펴보기 • 발표자료 만들기 	<p>수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그래프 • 어렵하기 • 평균과 가능성 • 비율 • 분수의 소수 • 혼합계산
<p>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국가 유산 • 인권 • 민주주의 •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p>과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이용 • 생물의 항상성 • 태양계와 별 • 물체의 운동 • 용해와 용액

(어린이용 교재를 가리키며) 교재를 보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며 새롭게 배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아요. 여기에 적합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 교과서가 아니라도 다른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좋아요.

◎ 하나님을 알았어요! ◎

교과 과목 (또는 교과서 3)	배운 내용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수학	평균과 가능성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 다양성을 통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 / 생명을 신비롭게 설계한 하나님 /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 / 세상을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 지혜를 주신 하나님 /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는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을 ‘교과 과목’과 ‘배운 내용’ 칸에 각각 적어보아요. (시간을 준다)

(예) 수학, 평균과 가능성 / 사회,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 과학, 생물의 항상성 / 도덕,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에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떠올리기 어렵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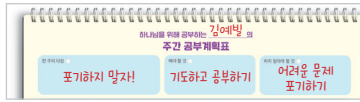
‘하나님을 알았어요!’ 표 아래에 적합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골라서 써도 되어요. (시간을 준다)

(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 다양성을 통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 / 생명을 신비롭게 설계한 하나님 /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 / 세상을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 지혜를 주신 하나님 /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다 적었나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소개해 볼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발표 시간을 가진다.)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한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공부하기로 해요.

2. 하나님을 위해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주간 공부계획표'를 작성한다.



다음은 '주간 공부계획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교재 뒷면을 보세요. (이름 쓰는 칸을 가리키며) 주간 공부계획표의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써 보세요. (시간을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께 하듯 공부해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하듯 공부하겠다는 '한 주의 다짐'을 한 줄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예) 주님께 하듯 정직하게! / 최선을 다하자! /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각 적어볼까요? (시간을 준다.)

(예) 해야 할 것: 기도하고 공부하기 / 모르는 문제 다시 풀기 / 모르는 것은 질문하기

하지 말아야 할 것: 쇼츠 보기 / 친구랑 채팅하기 / 어려운 문제 포기하기 / 문제 풀기 전에 답지 먼저 보기

다 적었으면,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아요. (발표 시간을 가진다.)

	월	화
세부 계획	사회 - 한국사 책 4p 읽기	○△×
		○△×
		○△×

잘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복습과 독서 등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목록을 각 요일의 '세부 계획' 칸에 적어보세요. (적는 시간을 준다.)

(예) 국어 - 독해 문제집 1일 치 / 수학 - 수학 익힘책 틀린 문제 복습 /

영어 - 화상 영어 30분 / 사회 - 한국사 책 4p 읽기

	월	화
세부 계획	사회 - 한국사 책 4p 읽기	○△×
		○△×
		○△×

여러분, 잘했어요. 계획표는 여러분 집에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계획표대로 실천해 보세요. 바르게 실천했다면 ○표, 조금 부족했다면 △표, 실천하지 못했다면 ×표 하며 계획대로 잘 실천했는지 표시하세요.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	---------------	--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칸을 가리키며) 매일 배운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어보세요.

☞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평가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하자!	
------------	-----------------------------	--

(‘스스로에 대한 평가’ 칸을 가리키며)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내가 주님께 하듯 공부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하자!

TIP-----
본 활동지는 가정용 교재 ‘자녀 세우기 at home’에서 활용하므로, 어린이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안내한다.

기도 하나님,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공부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진리



공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완성된 활동지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외치며 오늘의 핵심 진리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라!”

